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3-02 / 2003년 2월 20일

다국적기업의 對中 투자전략 변화와 전망

왕즈리(王志樂)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跨國公司연구센터 주임

I. 발표요지

1.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다국적기업의 대중투자전략 조정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국가개념의 약화 △개체간의 경쟁에서 집단경쟁으로 전환 등 새로운 추세를 가져옴.
-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10+1”, “10+3” 등 초국가적인 경제협력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 일본은 종래의 서구 중시정책에서 벗어나 중국, 대만, 한국, 동남아국가 등과 함께 동아시아경제권 형성에 주력하고 있음.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층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을 운영, 매월 정기 세미나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유관부처의 고위관리 및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며,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부문 인사,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10년 이상의 고속성장과 다국적기업의 투자확대로 동아시아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특히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와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를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부지역은 이미 동아시아경제권의 핵심으로서 시장잠재력이 가장 큰 ‘세계공장’으로 부상함.

□ 중국의 WTO가입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중국이 전면적으로 편입되어갈 것임을 의미함.

-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에 유리한 법률 및 정책환경 조성에 주력,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을 세계경영 네트워크의 핵심지역으로 간주, 대중 투자전략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2. 다국적기업의 대중투자전략 변화 추세

(1) 투자규모의 확대

□ 최근 대중 외국인투자의 급증 추세 속에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 규모 확대가 두드러짐.

- 2001년 대중 외국인투자 계약액은 전년대비 10.4% 증가한 691.9억 달러, 실행액은 14.9% 증가한 468.5억 달러임.
- 2002년 계약액은 전년대비 19.6% 증가한 827.7억 달러, 실행액은 12.5% 증가한 527.4억 달러이며, 2002년 6월말 현재 외국인투자 계약총과 실행액은 각각 8,280.6억 달러, 4,479.7억 달러에 달함.

□ 대만기업은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중국대륙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동완(東莞), 곤산(昆山) 등 주강 및 장강삼각주 지역에 거액의 투자를 하였음.

-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는 생산기지 이전 성격이 대부분이고, 전자정보산

업, 은행, 보험, 변호사 사무소 등 서비스업 진출이 두드러짐.

- 2001년 대만의 대중투자 계약액은 전년비 71% 증가한 69억 달러, 실행액은 동 30% 증가한 29.8억 달러임.

□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는 2001년 계약액이 동기 대비 47% 증가한 54억 달러, 실행액이 49% 증가한 43.5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음.

- 종래 일본기업은 중국을 저임가공생산기지로서 일본 국내시장 및 구미시장을 보조하는 존재로만 인식하였는바,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국시장전략’이 부재하였음.
- 중국의 WTO 가입후 HONDA, 토요타 등 자동차산업과 소니 등 가전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중국시장전략’이 추진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중국지역본부의 전략기획과 마케팅기능 강화, 마케팅 및 기술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중국시장을 겨냥한 연구개발기능 강화, 유력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등임.
- 또한 일본 다국적기업들은 서비스시장 개방 등 중국의 개방시간표에 상응한 중국사업 운영체제를 모색하고 있음.
- 지역적으로는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동(華東)지역이 향후 5-10년 간 일본 다국적기업의 대중투자전략의 중심이 될 것인바, 동 지역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시장개척, 생산기지 이전, 제품 및 서비스조달 전략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음.

□ 여타 다국적기업들도 대중 전략을 조정하여 투자와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GE사는 2005년까지 중국에서 매출액 50억 달러, 제품조달 5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판매, 조달, 직접투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등 종합전략을 추진중임.

- SIEMENS사는 2005년까지 매출액 제고(110억 유로화), 6,000명의 신규직원 추가채용(현재 25,0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디자인 연구개발을 지향함.
- 모토롤라도 2006년까지 중국에서 연간 생산액 100억 달러, 투자누계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향후 5년내에 누계기준 1000억 달러의 부품과 서비스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국 삼성그룹은 2005년까지 중국에서 삼성전자 계열사의 매출액을 140억 달러로 올리고, 향후 3년내에 중국시장을 삼성의 최대 해외시장으로 만든다는 중국발전전략을 내놓고 있음.

(2) 투자프로젝트의 횡적·종적 연계성 강화

- 다국적기업들은 지속적인 제조업 부문 투자를 통해 중국의 ‘세계공장화’를 가속화 함.
- 기존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조정, 통합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망없는 기업은 문을 닫거나 업종을 전환시킴.
- 중국이 경쟁력을 갖는 소비재 업종의 경우 중국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일부 중국기업을 인수함.
- 제조업의 업스트림 분야, 즉 기초원자재와 부품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독일 BASF, SHELL, BAYER, BP사 등이 惠州, 上海 등지에서 각각 추진중인 4개의 대형 석유화학공 프로젝트가 바로 이러한 유형임.
- 중국의 자급율이 낮은 대규모집적회로(칩)에 대한 다국적기업들의 대규모

모 투자도 북경, 천진, 상해 등지에서 진행중임.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국을 아시아지역 연구개발센터로 만들고 있음.

- 종래에는 IT산업 위주로 연구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중국의 WTO가입 이후에는 제조업 분야 기업의 중국내 연구개발센터 설립도 활발함.

- GE사는 2002년 3월 자사의 중국 연구개발센터를 독립법인으로 등록시키고 2,900만 달러의 등록자금을 투입함.

- 중국의 WTO가입 후 다국적기업의 대중국 기술이전은 대폭적이고 자발적인 기술 양도, 연구개발 경영전략 추구,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양도의 동시 추진, 기술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생산서비스업에 투자하여 중국을 지역경영본부로 삼음.

-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약속 이행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업, 도매, 소매, 대외무역, 물류를 포함한 유통업, 부가가치 통신과 기초통신을 포함한 통신서비스업 및 법률, 회계, 관리, 컨설팅업 진출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관심이 높아짐.

- 최근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설립한 투자회사를 중국 혹은 대중화(大中華)지역의 지역본부로 승격시키고, 일부는 중국 지역본부를 아태지역 본부로 전환함. 일례로 2002년 5월 프랑스 EDF사가 북경에 EDF사 아태본부를 설립한 것을 들 수 있음.

- 또한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경영본부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다시 조달센터, 판매센터, 연구개발센터, 교육센터, 재무센터, 대정부 관련 업무센터, 매체홍보업무센터 등을 두고 있음. 예를 들면 월마트는

심천에 조달센터를 설립했음.

- 이상을 종합하면, 중국의 WTO가입을 전후하여 다국적기업들은 제조업 부분의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 투자를 강화하여 투자프로젝트의 횡적, 종적인 연계성과 체계화를 추구하고 있음.

(3) 투자지역의 조정

- 최근 몇 년간 다국적기업의 대중 투자는 주로 동부 연해지역, 특히 북경 · 천진을 중심으로 한 환발해경제권(環渤海經濟圈),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및 광둥 · 홍콩을 중심으로 한 주강삼각주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표〉 1997-2001년 외국인투자 실행액의 지역별 분포

연도	동부(%)	중부(%)	서부(%)
1997	85.99	10.58	3.43
1998	87.26	9.72	3.02
1999	87.88	9.29	2.82
2000	86.62	8.83	4.55
2001	87.15	8.75	4.1
1997-2001	85.96	8.78	5.26

자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국외자통계>

- 이는 중국정부의 중서부지역 투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이 여전히 동부지역을 주된 투자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추세는 금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4) 투자방식의 다양화

- 신규기업 설립에서 합병인수 방식으로 전환

- 최근 몇 년간 다국적기업의 투자에서 합병인수가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급증함.
- o 2000년 세계 다국적투자의 총액은 1조 2,708억 달러에 달하고 동 시기 다국적 합병인수총액은 1조 1,438억 달러에 달했음.
- 다국적기업의 중국기업 합병인수 참여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매우 적은 편인바, 이는 법률환경의 미비, 중국기업의 분할관리 관행, 자본시장의 낙후, 전문 중개기관의 부재 등에 기인함.
- o UN무역발전회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다국적 합병인수 규모는 매년 10억-20억 여 달러로, 300-4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외국인직접투자의 1/20에 불과함.
- 중국의 WTO가입을 전후하여 다국적기업의 중국기업 합병인수가 활발해지고 있음.
- o 이는 중국정부가 국유기업 개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에서 외국기업에 의한 합병인수를 허용하고 그에 따른 법률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 힘입음.
- o 2001년 Alcatel사의 상해Bell 합병인수, Emerson사의 화위안성(華為安聖)전기유한회사 합병인수 사례 등을 들 수 있음.
- 금후 제조업,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외국기업의 합병인수 사례가 늘어날 것이며, 동시에 중국계 기업에 의한 외국기업의 합병인수도 나타날 것임.
- o 2001년 북경삼원(三元)이 광둥성 국제신탁투자공사가 보유한 McDonald사 지분을 인수하여 대지주가 되고, 중국석유총공사(CN00C)가 인도네시아 소재 스페인석유회사의 자산을 인수한 사례가 있음.

□ 합자기업에서 독자기업으로 전환

- 다국적기업은 중국진출 초기에는 합자 형태를 많이 취했으나, 중국시장에 대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독자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일본기업에서 두드러짐.
- o 모기업은 합자기업의 독자화를 통해 동 기업을 동경 본부가 주도하는 산업내 분업체제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기술이전 및 지적권 보호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단일 프로젝트에서 산업연계(체인)투자로 전환

- 중소기업과 달리 대형 다국적기업의 대중 투자는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상호연계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NOKIA사의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성망(星網)공업단지에 대한 투자는 전형적인 산업연계투자의 사례임.
- o 성망공업단지는 유명브랜드 제품을 내세워 세계시장을 지향하며, 관련 제품 생산기업의 상호협력 및 공동투자의 새로운 모델을 개척함. 이러한 모델은 기업간 거래 코스트를 절감시키고 시장수요의 변화에 신속 대응하여 기업의 운영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o 이와 함께 성망공업단지는 현대화된 창고, 물류시설을 건설하고 전문 물류회사를 통해 일괄 관리할 계획임.

(5) 투자관리체제의 일체화

-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하여 다수의 다국적기업은 중국내 투자관리체제에 대한 조정을 실시했는데, 이는 △중국본부의 설립 및 강화 △중국운영센터의 설립 및 강화 △대중 투자기업과 중국본부의 일체화 등 3 가지 측면으로 나타남.

□ 중국지역본부 설립 및 강화

- 90년대까지는 금융, 유통 등 서비스분야 개방전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설립이 별 의미가 없었음.

- WTO가입으로 중국의 금융, 유통분야 개방시간표가 확정됨에 따라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기존 투자회사의 조정 △중국지역본부의 신규 설립 △아태지역본부의 중국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운영센터의 설립 및 강화

- 중국시장은 지역별, 업종별로 환경이 크게 달라 중국본부만으로는 다양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중국내에 여러개의 운영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중국업무를 조정하고 있음.
- o 이는 중국 혹은 아태지역본부에서 분리된 투자센터, 제조센터, 물류센터, 연구개발센터, 교육센터, AS센터, 재무센터, 결산센터 등의 업무별 운영센터와 다국적기업 본사에서 중국에 설립한 지부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음.

□ 중국내 기업관리의 일체화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금융, 무역업, 도소매업, 물류업 등의 개방으로 조만간 다국적기업의 중국본부가 소속 기업에게 전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기존의 생산기업 및 지사들을 어떻게 운영관리센터 및 중국본부와 통합하여 통일된 관리체계 속에 편입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이미 일부 다국적기업은 기업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바, 일부 회사는 내부주식 양도를 통해 관련기업들의 지분을 중국본사로 양도하거나 집중시키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소속기업을 지역별, 업종별로 재조정함.
- o PANASONIC중국유한공사는 중국본부를 독자회사로 전환 완료하고, 중국내 PANASONIC의 기업지분을 PANASONIC중국유한공사로 집중시켰으며, 궁극적으로는 중국내 50개 소속기업을 단일한 관리체계 속에 통합시킬 계획임.

3. 다국적기업의 새로운 대중투자 추세와 중국의 대응 방향

- 중국에 투자하는 다국적기업의 기술과 자금, 관리경험, 네트워크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우선, 중국은 다국적기업을 통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신속히 편입되어야 함. 중국기업은 장기적인 전략하에 외국인투자의 도입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통해 국제적인 기술협력과 경쟁에 참여해야 함.
- 또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통해 지방경제의 번영을 촉진해야 함.
 - 각 지방은 기업유치 경쟁보다는 투자환경 개선 경쟁에 주력해야 할 것임바, 기업의 창업, 경영, 이익창출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다국적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요구는 종래의 하드환경(지리적 위치, 인프라시설)에서 소프트환경(법제, 정책, 행정, 시장, 문화) 및 기업생태환경(산업연대, 기업그룹, 지역경제협력체)의 개선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해외 다국적기업에 대한 학습을 통해 중국의 다국적기업을 육성해야 함.
 - 중국의 다국적기업은 외국기업을 학습하는 피동적인 세계화 참여단계에서 외국기업과 협력하는 주동적인 세계화 참여단계로, 궁극적으로는 그들과 경쟁하여 세계화를 주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

II. 토론요지

問: - 다국적기업의 대중 투자의 새로운 추세를 보면 △대중투자규모의 확대 △ R&D 투자 확대 △산업 연계방식의 운용 등 3가지가 두드러지는데,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도 같은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삼성, LG가

북경에 R&D센터를 설립했고, 현대자동차의 북경진출에 따른 부품업체의 동반진출 사례도 들 수 있음. 오늘 발표 내용에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 중국측의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기대함.

답: - 앞으로 한국기업의 상황을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할 것임.

問: - 작년 말 중국공산당 제16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GDP를 현 수준의 4배로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매년 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함.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금년에 이라크전쟁 가능성, 북한핵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어두운 가운데 금년 1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6년만에 적자를 시현함.

답: - 개인적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 잘 살고 싶어하는 중국인의 강력한 의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함. 또한 저렴한 인건비의 우위는 앞으로 적어도 10년이상 지속될 것이고,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시장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임. 따라서 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외부조건이 다소 악영향을 미친다 해도 성장이 지속될 것임.

問: -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중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답: - 일본투자기업의 경우, 1997년 통계이긴 하지만 이익을 낸 기업, 손실을 본 기업, 균형을 유지한 기업이 각각 1/3을 차지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다수의 적자기업들이 흑자경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구미투자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익을 볼 수 있음. 하지만 중국기업과 경쟁을 하는 업종에서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問: - 중국의 WTO가입 후 중국진출 외자기업에 대한 기존의 세금우대가 축소되거나 철폐되는 등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것이 외국인투자자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답: - 중국의 WTO가입 후 외자기업에게 내국민대우를 실시하고 중국계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대우를 통일시킬 것임. 이는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의 축소를 의미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세제도의 합리화로 과세 수준이 낮아질 것이고, 시장개방에 따른 혜택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우대 축소가 외국인투자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임.

問: -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전략을 실시하고 서부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가 여전히 동부에 집중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중국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답: - 중국 동부는 지리적으로 월등한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함. 중서부지역은 인프라 건설과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외자의 동부지역 집중현상은 지속될 것임. (***)